

# 변화 속에 있는 북한사회와 남북간의 대화

박찬식 (기독교 산업사회 연구소장, 국제 이주자 선교포럼 상임이사)



지난 5월 1일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탈북자 및 북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북한 경제는 미국과 세계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연 1%에서 5%사이의 빠른 경제 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성장률은 민간 부분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은 서로의 대화를 발

전시키려 노력했으나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협력사업들은 거의 모든 분야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끝내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남한과의 협력 중단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연간 북중 무역 (2010~2016년)

<단위: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11.9 (137.3)	24.6 (107.4)	24.8 (0.8)	29.1 (17.2)	28.4 (-2.4)	24.8 (-12.6)	26.3 (6.1)
수입	22.8 (88.3)	31.7 (38.9)	34.5 (8.9)	36.3 (5.4)	35.2 (-3.0)	29.5 (-16.4)	31.9 (8.3)
계	34.7 (102.6)	56.3 (62.4)	59.3 (5.4)	65.4 (10.4)	63.6 (-2.8)	54.3 (-14.7)	58.3 (7.3)

\*( )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KDI 북한 경제리뷰』 2017년 1월.

북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남한의 교류와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 및 교류가 더 활발해져 왔다는 것이다. 2000년만 해도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4억 8천 800만 달러, 중국 의존도는 24.8% 였지만, 지난 2016년 북한과 중국의 총 교역액은 55억 1천만 달러 (6조 2천억원)로 북한의 총 교역액의 91.5%에 달하는 것이다. 즉, 작년 한 해동안 북한 전체 교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선 것이다. 16년 사이에 중국과의 교역액은 12배, 중국 교역 의존도는 3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중국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 위로 화물차들이 북한을 향해 가고 있다.(사진 출처: VOA)

의 제재 속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로 남북 교역이 위축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장마당이라는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언론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운운하지만, 사실상 북한사회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마당은 김정일 시대에 200여 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00여 개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부에서 '달러화'를 통한 거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백화점들이 들어서고, 전국적으로 장마당 시장으로 불리는 서민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평양의 순안 국제공항은 예전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의 출입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시내는 예전보다 자동차도 늘어났고 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 주민의 핸드폰 사용은 삼백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 오라스코姆 통신사가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 이래 이제는 오라스코름사가 철수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남북간의 대화나 협력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밤하늘 동틀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조만간 우리 한반도에  
밝고 건강한 대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해 본다.

정권은 휴대전화의 독자 모델 개발과 대중화를 지시  
하였고 통화 품질도 우수하다고 한다.

우리 대부분은 북한을 공산 독재하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주변국가와의 긴장  
을 고조시키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  
련체제가 와해된 후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연방체  
제하에 있었던 국가들과 중국 등의 공산국가들은 시  
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  
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변화는 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  
다고 여겨진다. 물론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과 미사  
일의 개발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남북 협력은 쉽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국면으로 남북간의 대화나 협력은 어려워 보  
인다. 하지만 밤하늘 동틀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조  
만간 우리 한반도에 밝고 건강한 대화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해 본다.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한국 담당 보좌관

을 지낸 '수미 테리' 컬럼비아 동아시아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통일 한국은 7,5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산  
업대국으로 발전될 것이며, 기술대국 남한, 자원 부  
국 북한이 하나되어 대륙과 연결될 때 중국과 러시  
아를 넘어 유럽까지 경제적 영역을 넓히어 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지도자들의 대화가 절  
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민간 경제 부문의 교류  
도 새롭게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가 대  
결과 대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민  
족의 앞날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 박찬식

우즈베크 국립학술원 역사과학아카데미 명예역사학  
박사로 현대 투신투석펀드매니저와 한반도 대학원  
대학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